

# 장기이식 제도 조속처리 촉구

## 장기이식법 시행 10년... 정착은 멀어

국내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모두 59만3679명으로 10년 전 4만6938명보다 무려 12.6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중 사후 관리를 받은 사람은 43.5%에 불과했으며, 이중 실제로 장기기증을 한 사람은 6.5%에 그쳤다. 이와 관련 장기이식 관련법을 강화해 장기기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장기기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요구 또한 높다.

이런 가운데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학회에서 장기이식법에 관한 토론회의 장이 펼쳐졌다.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조원현)는 3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2월 이예주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전면개정안' 이하 장기이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불교(생명나눔실천본부), 가톨릭(한마음한몸본부) 등 종교계 장기이식 기관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대표자들이 참여해 장기이식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예주 국회의원이 건의한 이 법안은 △뇌사 추경사 신고제 도입 △뇌사판정위원회 폐지 △장기기증



3월 23일 열린 장기이식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정복자 사무총장,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한나라당 이예주 의원, 김용태 신부,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이 국회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관 설립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예주 의원은 "뇌사추경사 신고제는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를 담당 의료인 등이 바로 신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법·행정 전문인으로 구성된 현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뇌사판정전문 의료인을 두자"며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예주 국회의원 등이 2009년에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장기기증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조항 등을 담고 있다는 게 대한이식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장기이식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법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훈상 회장은 "뇌사자의 판정기준과 범위의 관련한 문제로 이른바 존엄사법안에 포함된 존엄사법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고도의 생명 윤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부분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뇌사판정기구를 없앨 경우 뇌사판정 기준 등이 자칫 허술해 질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예주 의원은 "뇌사판정기구를 없애고 법안을 내놓았지만, 간소화 시키는 방안도 고려 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한이식학회는 "장기이식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많은 환자들은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며 병마

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장기 기증자를 관리해야 하는 각 의료인과 기관들 또한 기존 체제와 개정안의 새로운 체제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어 "장기기증을 받는 것이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뇌사자 장기기증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뇌사는 뇌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뇌 기능이 손상돼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한다. 뇌사자는 연명치료 장치로 일시적으로 심장박동을 유지 할 수 있지만 2주 안에 심장박동이 정지돼야 하는 상태이다.

한마음한몸 관계자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4~5배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뇌사로 판정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또 다른 생명의 존엄성을 거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의 본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이식학회 김순일 위원장은 "장기 수혜자가 장기이식의 후 5년간 생존율이 미국은 67.2%~80.5%이고, 우리나라는 92.3%이다. 장기이식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며 장기이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선주 기자 zao211@buddhapia.com

### 태아 살리기 범국민대회

## 낙태 근절 5대 정책과제 제안

낙태 시술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국가·국민에게 낙태 근절을 호소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사회(회장 차희제)가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태아 살리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범국민 대회에는 불교인 권위위원회 진관 스님, 경기 구담사 주지 지을 스님(불교), 가톨릭, 개신교 단체 대표들과 의사,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날 발표된 5대 정책 과제는 △출산 장려금·장애인 보조금 증액 △다자녀 가정에 주택분양·교육 등에 우선순위를 둘 것 △미혼모·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초·중·고 성교육 시간 확대 △성교육 전담 교사 배치하는 것 등이다.

프로라이프 의사사회는 1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낙태 근절을 위한 5대 과제를 정부에 제출해 시행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차희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간 34만 여 건, 하루에 4000여 건의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낙태는 사회 윤리를 위해



3월 24일 열린 '태아 살리기 범국민대회'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단체 대표, 일반 시민들이 낙태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생명 의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법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 269조에 벌금·징역으로 임신부의 낙태를 금지 법령이 있으며,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형법 270조)을 규정 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 14조에는 낙태 허용한계가 명시돼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신장애나 신체·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등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

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 임신 △본인 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해할 경우 등이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인공임신 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수립 대책'(200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29.8%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95.6%가 불법 수술이다. 이들의 낙태 수술의 주된 이유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산하제한 제도, 양육 부담)에서였다.

이날 발표된 대국민 호소문에는 "지금 우리는 자식을 죽이는 행위를 자신의 권리로 말한다. 이는 정부·의사·국민 모두의 책임 인만큼 반성하고 생명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자"고 명시돼있다.

이어 호소문에는 "의사는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본분인 사람들이다"며 "의사들이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챙겨 온 것을 반성하자. 이제 무감각하고 죄의식 없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성철 한일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낙태 후유증을 소개하며 "낙태는 태아·여성의 건강과 행복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 개원

조계종 교육부사 최초로 마곡사(주지 원혜)가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개원했다.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은 3월 15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관식을 거행하고 17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원은 수강생들에게 △노인복지 이론 △노인요양보호사의 역할 △노인요양보호사로서 숙지해야 할 간호법 등을 3주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가르친다. (041)841-6221 박선주 기자

### 은행·학교 불교복지사업에 관심

은행과 학교 등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불교계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KB국민은행 산본지점(지점장 김재영)은 3월 19일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다래)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군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인 다래 스님은 "KB국민은행 산본지점은 사회협력지원부가 신설된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며 "후원금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 소중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과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가 3

월 19일 자매 결연을 맺고 같은 날 한성대와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가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우리 사랑 나눔 터'로 선정했다. 향후 지역 영입본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부 활동과 인직원과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한성대와의 협약은 노인복지정책 등에 관한 이론개발과 상호 자원을 위한 협력과 개방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박선주 기자

### 해외

### WORLD

## 구글, 이타주의 경제 선도하나?

### 중국서 철수 결정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하는 영자지 차이나비즈니스(3월 19일자)는 "구글(google)의 중국 철수가 4월 10일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재정적 이익보다 인권이 우선이라는 구글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다. 더욱이 지난 1월 구글의 지메일(email)이 해킹 사건의 범인이 중국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번 철수 결정은 급물결을 탔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에 거스르는 이번 구글의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보호에 대해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2006년 구글은 중국정부의 일부 검열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google.cn(구글닷차이나)를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티베트와 티베트 내부의 갈등은 물론 1989년 북경대학살, 파룬궁 탄압에 관련한 검색과 정보 제공을 전면 차단했다. 뿐만 아니라 앞의 사실 제공이 중국인의 자유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설, 구글로 인해 중국의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중국은 구글로 인해 훼손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티베트 망명정부의 달라이 라마 대변인을 중국에 초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담 결과는 진전이 없었다.

13억 중국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은 31% 이상의 시장을 확보해 오고 있다. 아후는 10% 미만이다. 4월 10일, 구글이

중국에서 짐을 싸게 된다면 이후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의 순위 변동은 필연이다. 과연 구글의 경영 지도자가 이번 결정을 고수할지도 주목된다. 중국정부가 고심하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중국화 전략에 구글의 행보가 적지 않은 골치 당이 아닐 수 없다.

인도 다람살라 = 가연숙 객원기자 onniflower@gmail.com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키로 함에 따라 '부드러운 중국' 이미지가 훼손됐다.



##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들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끈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범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흥이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중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랑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엮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평가, 신발, 만신님을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충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중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중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의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별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원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